

### 기말고사 맞은 대학가 '커닝이 기가막혀'

# 쪽지는 옛말, MP3 녹음에 PDA 스캔까지 IT기기 동원 갈수록 대담



광주교대 학생들이 '클린 커닝 기말고사 캠페인 포스터'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설마 커닝을 가르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커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다.

번번이는 아이디어와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커닝을 하려는 학생들과 강력한 학칙·양심 캠페인 등으로 커닝을 막으려는 학교당국의 대결이 불꽃 튀고 있다.

### 학교마다 예방책 골머리

친구는 두꺼운 지우개를 여러 겹으로 잘라 책갈피 형식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요점을 뿔뿔이 적고 있었다. 그는 글자크기를 최대한 줄여 출력한 커닝 쪽지를 속이 비치는

블렌 안에 말아 넣는 것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책상에 예상 답안을 적어놓거나, 커닝 쪽지를 만드는 수준에 불과하던 대학가의 커닝이 진화하고 있다. 예상 답안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PDA 등을 이용하면서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지기까지 한 것이다.

안에 책 내용을 그대로 스캔해 저장해 놓고 시계 보는 척하며 커닝하고도 싶지만, PDA가 없어서 포기했다.

신모(21·S대학 2년)씨는 MP3에 예상 답안을 녹음한 뒤 감독관의 눈길을 소홀해진 틈을 타서 재빨리 듣는 방식을 취한다. 커닝 수법이 디지털화·지능화 되는 것에 맞춰 학교당국과 학생회의 대응도 강력해졌다.

400여장을 제작, 강의실 곳곳에 부착하는 등 '클린 기말고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적발땐 F학점에 유기정학

목포대는 커닝하는 학생을 적발하면 15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히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등 대부분의 대학도 해당 과목에 한해 F학

점을 주고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심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조선대 경상대학 김모(여·25) 조교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감독관을 두 명 이상씩 배치하고, 핸드폰을 끄고 전부 바닥에 내려놓게 하지만 한 학기에 20여명 정도가 적발된다"며 "디지털 기기의 도입으로 커닝이 더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 나원침 (7237)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mputer Center) services including DS construction, KCC training, and software development.

## 인기 장난감 기차 '토머스...' 리콜

### 남성분 함유 10개모델 ... 완구점에 향의 빔발

남성분 함유 때문에 미국에서 리콜 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장난감 기차 '토머스'와 '친구들'이 국내에서도 판매 중단되고 리콜에 들어갔다.

캠스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총관 회사의 권고에 따라 자진리콜을 실시한다"면서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산 업자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팔린 목재 제품 10개 모델이며 광주·전남지역 완구점에서도 상당수 판매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남은 인체에 쌓일 경우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두뇌 장애 및 혈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등산 일대 불발탄을 찾아라 육군보병학교 장병들이 15일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에서 불발탄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Weather forecast for June 16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5-day outlook.

## 비극의 昏定晨省

〈혼정신성·부모님 잠자리 살피는것〉

치매 노모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보일러를 살펴본 효행(孝行) 가족이 한순간의 실수로 화재 사고(본보 15일자 7면)를 당했다.

깨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 식구가 늘었다고 마냥 좋아하던 증손자들의 재물이 집안에는 웃음이 떠나갈 지경이었다.

### 90세 치매 노모 보살피기 위해

### 초여름에도 보일러 가동

### 기름통 폭발에 일가족 5명 참변

과 함께 김씨 가족의 행복도 산산조각이 났다. '평'하는 소리와 동시에 일어난 불길은 삼시간에 15평 기와집을 삼켰고 김씨는 다른 가족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90세 노모를 모시고 겨우 집안을 빠져 나왔다.

이날 저녁 나들이를 떠났던 박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무렵, 김씨는 아들 박씨에게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확인을 부탁했다.

## '전화사기' 갈수록 지능화 신고 즉시 압수영장 추진

### 법정부처 대책 마련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 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영장장은 사후에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는 점에서 김·경뿐 아니라 국제범죄를 다루는 국정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원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신 각 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TF 구성과 함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영장장은 사후에 발급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범원장까지 피해를 입는 등 보이스 피싱 문제가 심각해져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처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과 금융원, 법무부, 정보통신부,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7일 보이스 피싱 문제를 심각해져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처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은 공동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관은 보이스 피싱이 짧은 시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수사 및 금융당국으로 '보이스 피싱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주로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의 금융회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주로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의 금융회사를 통한

### "교장에게 술 한잔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 대법원 원고 승소

대법원 3부는 15일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유한 것을 성희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행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담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9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도 여교사들이 따르지 않자 재차 강요했다가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서해안 고속도로 승용차 전복 4명 사망

15일 오전 3시37분경 영광군 불갑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48.2km지점에서 토스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경찰은 "사고 직접 인연에 고라니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사고 승용차가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났을 가능성 등 정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25)씨 등 4명이 숨졌다.

### 부녀자 3명 연쇄살인범 대법원 사형 확정

대법원 2부는 15일 광주와 춘천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 살인과 강·절도를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조모(30)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카페 여주인 김모(당시 55세)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원의 빼앗아 달아났고, 같은해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주부 김모(여)씨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부녀자 3명을 살해하는 등 살인과 강·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 성인오락실 위장 취업 돈 훔친 10대 4명 영장

순천 경찰은 15일 성인오락실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고를 텅 김모(18·순천시 조례동)·이모(18·순천시 해룡면) 등 4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도둑맞은 '개' 유전자 검사 요령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둑맞은 60대 남자가 비수하게 생긴 개를 발견,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64·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는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자신의 농장에서 잠잠한 3마리를 도둑맞은 후 찾아다니다가, 14일 광산구 삼계동 개시장에 현모(46)씨가 끌고 나온 비수하게 생긴 개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

경찰에서 김씨는 "도둑맞은 개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씨는 "이 개는 영산포에서 샀다"고 맞섰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개와 영산포에 살고 있는 어미개의 타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검사할 의뢰할 계획.